



남원 주천면 농악단, 시군농악경연 장려상 수상

남원시 주천면 농악단(단장 김정호 외 39명)이 최근, 완주 체육센터(삼례읍)에서 진행된 제44회 전북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통 농악 계승 발전과 농악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북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농악팀이 출전해 열린 경연을 펼쳤으며, 주천면 농악단은 작년도 제24회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남원시 대표로 출전하였다.

노환순 주천면장은 “주천면 농악단원들이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원의 대표 농악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봉의용소방대, 경로당 등에 온열찜질기 전달

운봉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현자, 이하 소방대)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운봉읍 내 34개 경로당과 5개 가구에 온열찜질기 39개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소방대는 매년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과 물품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대원들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독거노인 등 난방 여건이 취약한 5개 가구에도 직접 방문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박현자 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백산면 지사협, 독거 남성 식료품 꾸러미 지원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 위원장 고은용)가 지난 10일 저소득 독거남성 4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식료품꾸러미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생활여건이 취약한 1인가구의 기본 식생활을 돕고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은 오리훈제, 곰탕, 참치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면서 건강상태와 안부를 물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섰다.

고은용 민간위원장은 “추운날씨로 정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독거남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상 백산면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모두가 행복한 백산면을 위해 위원들과 뜻을 모아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주민주도 도시재생’ 전국서 통했다

정심조합, 전국대회서 국토부장관상 ‘대상’ 쾌거

정읍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우뚝 섰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읍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정심조합)’이 ‘2025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1차와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뚫고 얻어낸 결과다. 정심조합은 삼금 200만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으며, 정읍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형 성공 모델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했음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유육경 이사장과 15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정심조합은 지난 2023년 1월 설립된 정읍시 최초의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일대 원도심에 조성된 △떡어울림플랫폼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 △패브리카트갤러리 △술문화관 △기억저장소 △문화예술플랫폼 △메이플게스트하우스 △공영주차장 3곳 등 총 10개소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특히 정심조합의 매출은 2024년 대비 2025년 9월



기준 약 13% 성장했으며, 매출 구조 또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체험 사업, 판매 사업 등으로 다각화했다. 조합은 지역 특산물인 정읍생선드, 쌍화모주, 귀리커피 등을 자체 개발하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순환경제 구조를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프로그램들도 관광객 유입에 큰 몫을 했다. △정읍 시티스테이 1박 2일 투어(140명 참여)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사문화 프로그램(500명 참여) △생고를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시장투어(1800명 참여)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아울러 지역 축제인 벚꽃·물빛·구절초 축제 등에 참여하고 쌍화차 무료 시음·나눔 행사를 여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상호교류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와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의사장 이승우)는 11일, 새만금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새만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새만금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실무 협력 강화 △주요 사업 및 지역 발전 이슈에 대한 공동 홍보 협력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이승우 이사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의 연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 지역의 개발사업, 홍보 활동, 공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별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지역과 이웃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가 11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재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윤정순 회장은 “우리 무주의 아이들이 훗날 무주를 빛내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 모두가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무주군 지역의 농촌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업인 단체로, 4백여 명의 회원들이 7개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와 안전한 농촌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부터 장학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백30만 원을 기탁하는 등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정읍 입암면, 38개 마을에 겨울 이불 지원

정읍시 입암면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줄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면은 지난 10일 관내 38개 마을의 취약계층 가정을 선정해 따뜻한 겨울 이불 38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 부담과 추위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안락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나눔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암면을 구성하는 38개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졌다. 평소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마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장들이 직접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추천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온정이 닿을 수 있게 했다.

정재병 면장은 “이번 겨울 이불 지원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몸과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면서 “추운 날씨에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청 운전직 공무원 모임 청운회, 장학금 기탁

무주군청 운전직 공무원 모임인 청운회가 11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재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회장은 “지역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회원들 모두가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좋은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청운회는 무주군청에 근무하는 현직 운전직 공무원 21명이 함께 하는 친목 모임으로, 지난해에도 1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군청 조직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